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EIF), 직접접근 기구 중 GCF 능력배양 지원 무상증여 협정 서명

2016.11.15 마라케시 -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EIF)이 녹색기후기금(GCF)과 무상증여 협정을 오늘 체결하면서, GCF의 능력배양 자금 지원을 받는 첫 번째 직접접근 기구(direct access entity)가 되었다. 이번에 체결된 능력배양 무상증여 협정은 국가/지역 기구 자격으로 이행기구 인증을 받은 GCF 직접접근 기구가 GCF 사업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금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협정은 마라케시 기후변화 총회 기간 중 체결되었으며, 베네딕트 리반다 EIF 최고 경영자와 우세이누 나쿨리마 GCF 국가프로그래밍 국장이 서명하고 나미비아 국가지정 기구(NDA)를 대표하여 페트루스 무테올리, GCF 공동이사로 자히르 파키르가 참관했다.

EIF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나미비아에서도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기후 회복력 지원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개발 중에 있다. GCF에서 능력배양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지역사회 수준의 협의회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 말했다.

GCF 우세이누 나쿨리마 국장은 “GCF는 국가 주인의식이라는 원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능력배양 프로그램은 이 원칙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EIF가 직접접근기구로서는 처음으로 GCF에서 능력배양 지원을 받게 되어 기쁘다.” 고 전했다.

이번 협정으로 EIF는 능력배양을 위해 39만2천 달러를 무상증여로 받게 되며, 지역 및 국가 워크숍을 포함한 다자이해관계 협의회의를 시행함으로써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천연자원관리가 지역사회 입장을 반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namibian-environmental-investment-fund-is-first-direct-access-entity-to-sign-gcf-readiness-grant-agreement?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